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창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김 주 미*

중소기업은 우리경제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중추로서 이러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는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의 관건이다(중소기업의 사업체수는 약 300만개로 전체 사업체수의 99.8%이며, 고용은 1,047 만 명으로 전체고용의 87.0% 차지). 특히, 기술 혁신을 근간으로 한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은 일반 중소기업에 비해 고부가가치형 기술력의 확보, 높은 생산성과 고수익성, 지속적인 기술혁신 활동 등으로 그 중요성이 더하다. 이는 단적으로 일반 중소기업과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 간의 경제 성장 지표라 할 수 있는 경영 성과 및 고용 창출 효과에 대한 비교를 통해서도 짐작 될 수 있다. 과거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과 일반 중소기업 간의 평면적인 경영 성과를 비교해 보면 전반적으로 고용 창출과 매출, R&D 투자 규모 등에서 3~4배 정도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그들 간의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 측면에서의 경영 성과를 살펴봐도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의 경영 성과가 양호함을 알 수 있다¹⁾. 아울러,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의 발전은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및 사회 양극화 해소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의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의 숫자는 일반 중소기업에 비해 여전히 부족한 상태이다. 2007년 2월 기준으로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은 15,020개(벤처기업, Inno-Biz 기업 중복 포함)로 전체 중소기업(소상공인 제외 33만개)의 약 4.5%를 넘는 수준이다.

* 중소기업연구원 경영연구팀 연구위원(e-mail: jmkim@kosbi.re.kr)

정책초점

이는 OECD 국가의 그것이 10% 인데 비해 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적은 숫자이며 현 정부가 혁신형 중소기업을 2008년까지 전체 중소기업 수의 10% 수준인 30,000개 육성을 정책 목표로 제시하고 있는바,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의 창업 및 육성이 더욱더 시급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 전반적 창업 현황 대한 고찰, 특히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제조업 창업 현황에 대해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구체적 정책적 제언을 도출하기 위해 중소기업정책 정보 시스템인 SPi-1357에 등록되어져 있는 중소기업 정책에 대한 전체적 분석 및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 정책에 대한 고찰, 해외 사례, 우리나라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의 특성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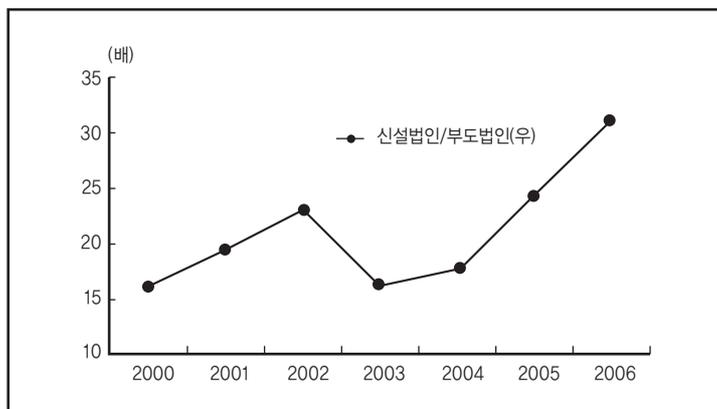
1. 창업현황²⁾

먼저 기업들의 전반적인 활력을 나타내는 창업배율(부도기업에 대한 신설법인의 비율) 추이를 살펴보면 지난 2003년을 바닥으로 2006년

까지 3년 연속 상승추세를 나타내어 기업들의 창업 활력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창업배율은 지난 2003년 9월 12.6배를 바닥으로 이후 지속적인 상승세를 나타내어 금년 1월에는 42.4배로 통계작성 이래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는 신설법인수의 감소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부도법인수가 더욱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서 최근 창업배율 지표의 시그널 기능이 현저하게 저하되었음을 보여준다. <그림 1>은 2000~2006년까지의 추이를 설명해준다.

이러한 창업배율 지표의 왜곡현상을 보완하기 위해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기준 사업자 기준에 의한 신규사업자와 폐업자 추이로 VAT상 창업 배율을 살펴본다<그림 2>. 부가가치세 신고기준 폐업신고 법인 대비 신규사업자등록 법인 수에 의한 창업배율을 산출해 보면 지난 2001년 이후 2005년까지 지속적인 하향 추세가 진행되고 있어 기업 체감경기 악화와 동행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최근 해외진출 기업 증가, 내수부진 지속에 따른 매출부진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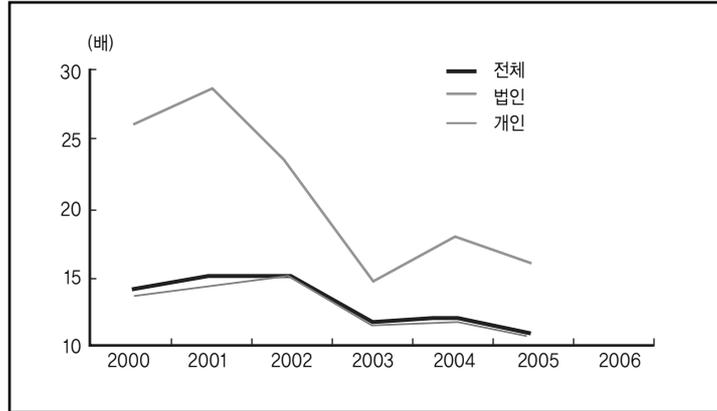
<그림 1> 창업배율(신설법인/부도법인) 추이



자료 : 한국은행, 중소기업청

정책초점

<그림 2> VAT상 창업배율(신규사업자/폐업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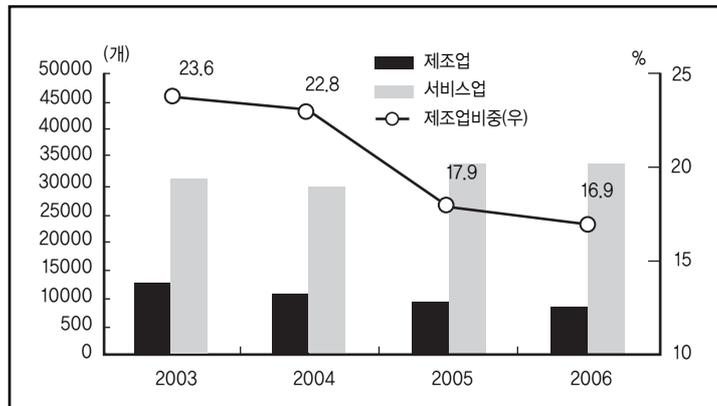
자료 : KOSBI

글로벌화 진전에 따른 수출기업의 채산성 악화 등 전반적인 기업환경의 악화로 인해 지난 2001년 이후 경영난에 의한 자진폐업 및 부도 기업 증가로 기업들의 순 창업 활력이 크게 저하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전체 창업배율은 2001년 1.5배 수준에서 최근에는 1.1배 수준까지 하락했으며 세부적으로 보면 법인사업자 창업배율은 2001년 2.9배 수준에서 2005년 1.6배 수준까지 하락한 반면,

개인사업자는 2001년 1.5배에서 2005년 1.1배 수준으로 하락하여 상대적으로 개인사업자의 시장 진입 및 퇴출이 보다 빈번한 다산다사(多産多死) 형으로 나타나고 있다.

업종별 신설법인 수 추이를 살펴보면 제조업 창업의 경우 지난 2001년 벤처버블 붕괴 이후 신설기업 수가 점진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여 온 반면 서비스업의 경우 생계형 창업이 크게 늘어나면서 특히 2005~2006년 중 신설법인 수 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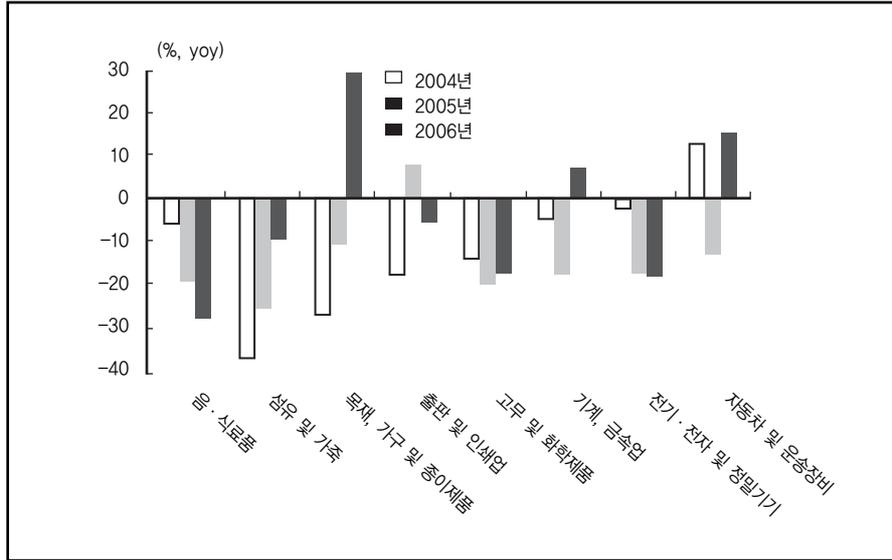
<그림 3> 제조업, 서비스업 신설법인 수 추이



자료 : 중소기업청,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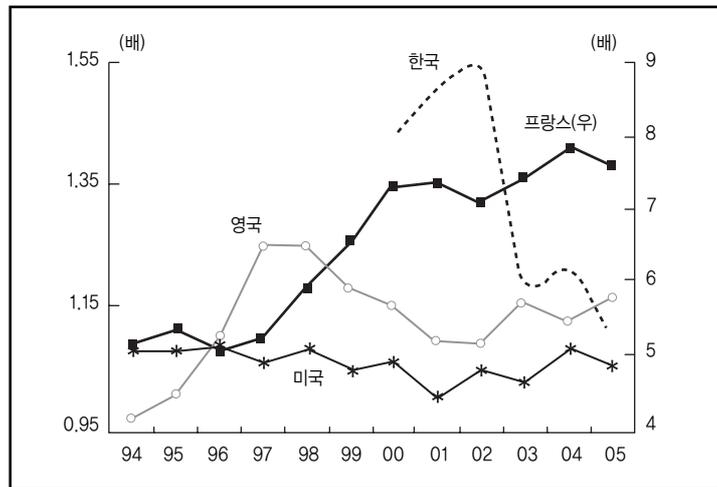
정책초점

〈그림 4〉 제조업 각 부문별 신설법인 증가율



자료 : 중소기업청, 한국은행

〈그림 5〉 각국의 창업배율 추이



자료 : U.K, SBS, Business start-ups and closures France, INSEE Conjoncture
U.S.A The Small Business Economy for Data year 2005, A Report to the President,
December 2006

가 추세가 뚜렷하다. 제조업이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바, 이는 단적으로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의 창업이 부진함

을 설명한다. 2004~2006년 3년간 제조업 부문별 신설기업 수 증가율 추이를 살펴보면 지난해 목재가구종이업종, 자동차 및 운송장비, 기

정책초점

계 금속업 등이 증가세를 나타냈을 뿐이고 이외 업종은 3년간 감소추세가 진행되고 있다.

외국의 창업 배율 추이를 살펴보자. <그림 5>에서 우리나라와 몇몇 나라의 창업 배율 추이를 비교했다. 외국의 폐업기업 수 대비 신설기업 수 비율인 창업배율 추이를 살펴보면 대체로 98년 이후 둔화추세를 보이다 2001년 이후 완만한 상승추세를 나타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2.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정의

문헌상, 혁신형 중소기업의 정의는 관점 혹은 기준에 따라 크게 6가지 유형으로 정리할 수 있다. (김영배(2005)) 첫째, 혁신적 중소기업(innovative SMEs)으로 다른 중소기업보다 신제품개발성과, 특히, 기술 혁신 건수 등의 기술 혁신 성과가 우월한 기업을 의미한다. 둘째, 기술집약적 중소기업(technology-based SMEs)으로 사업기회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상대적으로 우월한 고유의 능력(R&D 인력, R&D 투자 비중, 특허, 신제품 수 등)을 바탕으로 경쟁우위를 추구하는 중소기업을 의미한다. 셋째, 신생 기술기반 중소기업(new technology-based SMEs)으로 대학이나 연구소 등에서 신기술을 상업화하기 위해 창업한 신규 기술집약적 중소기업을 의미한다. 이들은 대부분 하이테크 중소기업 중에서 R&D 투자율 혹은 과학기술자의 비율이 평균보다 높고 업력이 낮은 중소기업이 해당된다. 넷째, 하이테크 중소기업(high-technology SMEs)으로 다른 산업보다 R&D 투자율 혹은 과학기술자 비율 등이 높은 하이테크 산업에 참여하여 경쟁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의미한다. 다섯째, 성숙기술기반중소기업(matured technology-based firm)으로 통상적인 창업기 기업보다 업력이 높지만 기업규모가 작은 상태로 존재하며 혁신성과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있는 기업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혁신형 중소기업(innovation type SMEs)은 기술혁신으로 차별화하는 전략을 구사하는 중소기업 혹은 기업의 전략차원 중에서 혁신전략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기업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청에서는 혁신형 중소기업을 크게 벤처기업과 기술 혁신형(Innobiz)기업, 경영 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정의했다. 여기서는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의 범위를 벤처기업 및 이노비즈 기업으로 한정한다. 벤처기업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차법 제 2조 2항에 따라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신기술 사업금융업자, 신기술 사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의 투자총액이 자본금의 20%이상인 기업, 매출 대비 R&D 투자 비율이 50%이상인 기업, 정부로부터 사업성우수평가(신기술로 인정받은 제품의 매출이 전체 매출의 50%이상이거나 수출액이 총 매출의 25%이상)를 받은 기업, 평가기관에 의해 기술성이 우수하다고 평가받은 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이노비즈 기업은 기술경쟁력과 미래 성장 가능성을 갖춘 중소기업으로 정의되며 기술혁신능력, 기술사업화 능력, 기술혁신 경영 능력, 그리고 기술혁신 성과의 4가지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선정요건은 신청일 현재 정상가동 중이고 업력이 3년 이상인 중소기업 기본법상 중소기업이어야 하고, 기술 신용보증의 현장평가 결과 기술 혁신 시스템 점수가 700점 이상(총 1,000점 만점)이고 개별기술점수가 70점 이

정책초점

상(총 100점) 이어야 한다.

3.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 지원 정책

1) 중소기업 지원정책 총괄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의 활성화는 단지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의 창업 단계의 정책만으로는 궁극적인 창업 활성화가 이뤄지지 않는다. 또한 영속적으로 기업을 유지하기 위해선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 정책 뿐 아니라, 중소기업 정책 전반에 대한 효과적 활용이 중요하다. 본 절에서 작성된 모든 표는 SPi-1357 시스템 자료에 근거한다. <표 1>은 SPi-1357 시스템 내 2006년 9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중소기업 지원 정책 현

황을 보여준다. 20개의 주요 부처와 지자체에 총 1516개의 지원 정책이 있다. 이 중 1/3에 해당하는 550개 정책이 판로/수출에 집중되어 있으며 산업자원부와 중소기업청이 지원 정책의 1/3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전체 중소기업 지원 정책의 96.5% 해당하는 1463개의 정책이 성장 단계와는 무관하게 지원되고 있다. 즉, 3.5%만이 중소기업의 성장단계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청이 타 부처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러한 성장 단계를 고려한 지원을 하고 있다.

<표 2>는 SPi-1357 시스템 내 부처별 성장 단계별 지원정책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표 1> 부처별 분야별 지원 정책 현황

주관부처명	분야					총계
	기술	인력	자금/보증	인프라	판로/수출	
건설교통부					3	3
과학기술부	21	7	7	3	3	41
교육인적자원부		1				1
국방부			1			1
노동부	1	61	4	1		67
농림부	3		22		9	34
문화관광부	22	10	19	1	44	96
보건복지부	4		2	1	4	11
산림청	1				2	3
산업자원부	48	13	91	8	65	225
식품의약품안전청				1		1
여성가족부				2	1	3
외교통상부					2	2
재정경제부		5	41	4	12	62
정보통신부	29	5	17	15	20	86
조달청					4	4
중소기업청	37	18	42	52	62	211
특허청	18		4		6	28
해양수산부			14		6	20
환경부	4		12	2	5	23
지자체	113	26	114	39	302	594
총계	301	146	390	129	550	1,516

<표 2> 부처별 성장단계별 지원 정책 현황

주관부처명	성장단계					총계
	예비창업	3년 이내	5년 이내	7년 이내	제한없음	
건설교통부					3	3
과학기술부	1			1	39	41
교육인적자원부					1	1
국방부					1	1
노동부				1	66	67
농림부			1		33	34
문화관광부					96	96
보건복지부					11	11
산림청					3	3
산업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청	1	1		3	220	225
여성가족부					1	1
외교통상부	2				1	3
재정경제부		1		6	55	62
정보통신부		2	1	3	80	86
조달청					4	4
중소기업청	8	1	2	4	196	211
특허청				1	27	28
해양수산부					20	20
환경부					23	23
지자체	2	4	2	5	581	594
총계	14	9	6	24	1,463	1,516

정책초점

2)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 지원정책 한 국내 지원 정책의 주 내용을 표로 간단히 정리해서 보여준다.
 국내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 지원정책에 대해
 서는 벤처<표 3>와 이노비즈 기업 <표 4>에 대

<표 3> 이노비즈 기업 주요 지원 정책

구 분	주요 지원 내용	
금 용	전 용	· 기술신용보증기금 및 14개 협약은행을 통한 기술평가보증 공급 등 신용여신 지원
	우 대	· 부분보증비율 전액보증 · 연대입보완화(대표자) · 운전자금 보증 1억 원 이하 사정생략 · 정책자금(6개) 가점 · 기업 당 보증한도 50억 원(일반30억 원) - 이행보증, 수출입금융 70억 원, 시설자금 100억 원 가능 · 보증료감면(0.2%), 신용등급 우량기업 0.2%추가 · 기술평가보증의 평가수준 완화 - 중간레벨수준 적용대상은 4억 원까지 · 영업점장, 담당이사 전결금액 확대
R&D	전 용	· 중소기업 기술혁신 소그룹지원우대
	우 대	· 기술혁신개발, 공정혁신지원,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이전기술개발, 구매조건부 기술개발, 기업협동형 공동기술개발, 산학협력실, BI 창업기업 공동기술개발 · 생산정보화, 쿠폰제 경영 컨설팅 · 해외유명인증 획득지원 · 공공기관 중소기업기술혁신지원(KOSBIR) · 중소기업 불법기술유출 방지사업 · 대학 내 기업부설 연구소설치사업 * 가점우대(3~10점)
인 력	전 용	-
	우 대	병역지정업체 (전문연구, 산업기능요원) 추천우대
판 로 · 수 출	전 용	-
	우 대	·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신인도 평가부문, 0.25점/8점) 우대 ·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 해외진출지원 - 지원(법률자문, 홍보)비율 10%상상향 (1년차 70→80%, 2년차 60→70%, 3년차 50→60%) · 글로벌브랜드사업 - 전업률 매출기준 30%미만도 지지원(1억원)
창 업 · 기타	전 용	-
	우 대	· 특허출원 시 우선 심사

정책초점

〈표 4〉 벤처 기업 주요 지원 정책

	구 분	주요 지원 내용	근 거
창업	법인설립	설립자본금 2천만원 이상 일반기업은 5천만원 이상	벤처육성특별법 제10조의2
	교수·연구원 창업	교수·연구원이 벤처기업을 창업 하거나 임원으로 근무하기 위한 휴직 가능 교수·연구원의 벤처기업 대표자 또는 임직원 겸임·겸직 가능	벤처육성특별법 제16조, 16조의 2
	산재권 출자	벤처기업에 대한 현물출자 대상에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등의 권리 포함	벤처육성특별법 제6조
	실험실 공장	교수·연구원의 실험실 공장설치 허용	벤처육성특별법 제18조의 2
창업세제	법인세, 소득세 50% 감면	창업 후 2년 이내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 50% 감면 창업 중소기업의 경우 과밀억제권역이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경우만 해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등록세 면제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벤처확인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의 등기에 대한 등기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취득세 면제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 취득세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
	재산세, 종토세 50% 감면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소유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 창업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50%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금융	코스닥 등록	등록심사시 우대(자본금 및 자기자본이익율 기준 하향 적용, 설립 후 경과년수 및 부채비율 적용면제 등)	유가증권거래소등록규정 (증권업협회)
	정책자금	중소기업정책자금 심사시 우대 (부채비율적용면제, 가점 등)	중진공 규정 (용자사업처)
	신용보증	신용보증 심사 시 우대 (보증한도 확대, 간이심사대상 확대 등)	신보 및 기술신보 규정(보증심사부서)
	투자지원	창업투자회사(조합)의 투자대상에 일력제한 없음 (일반기업의 경우 창업후 7년 이내 기업만 해당)	창업지원법 제7조
인력	스톡옵션	부여대상 확대(외부전문인력, 발행주식 50%까지), 행사이익에 대해 소득공제(연간 3천만원 한도)	벤처육성특별법 제16조의 3 조세특례제한법제15조
	병역특례	병역특례 연구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신청기회 2회 부여 (일반기업 1회), 산업기능요원 추천 심사 시 가점 부여	병역법시행령 제73조 중소기업청 요령 (인력지원과)
해외 진출 지원	벤처기업의 해외진출 촉진을 위한 지원 (박람회·전시회, 컨설팅, 시장조사 등) 미국 SBIR 진출지원 (법률컨설팅, 법인설립비 등)	중기청 추진사업 (해외시장과)	
특허	우선심사	벤처기업이 출원한 경우 우선심사 대상	특허법시행령 제9조
판로	방송광고	벤처기업에 대해 TV, 라디오 광고지원 (광고비 70% 감면)	내부지침(한국방송 광고공사, 영업1국)
기타	유한회사	벤처기업인 유한회사의 경우 사원총수를 300인 까지 가능 (일반기업은 50인 이하)	벤처육성특별법 제16조의 5
	주식교환	벤처기업의 경우 주식교환 가능 (전략적 제휴의 경우, 신주발행을 통한 주식교환의 경우)	벤처육성특별법 제15조
	집적시설 입주 벤처기업 특례	과밀억제권역내에서의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증가세율 적용 면제	지방세법 제280조

정책초점

〈표 5〉 각 국의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 지원정책(벤처 정책 중심으로)

국 가	주요 정책	특 징
미국	SBIR프로그램, SBIC프로그램, ATP등	신생 기업 위주의 지원, 시장 친화적, 과학기술 정책과의 연계
독일	High-Tech Master Plan, 연구개발 프로그램 범위 확장, 공공연구기관과 중소기업 간의 협력모델구축, 관련 교육정책 개선 등	미국과 유사, 신생기업 위주의 지원, 시장 친화적
프랑스	혁신법 시행, The Plan for Innovation 등	혁신법의 경우, 한국의 벤처특별법과 유사하나 신생 중소기업의 간접 지원 형태
이스라엘	Tunfa, 기술인큐베이터, Hezrek-Seed Fund, R&D Fund, 국가간 펀드 등	신생기업 위주의 지원, 과학기술정책의 성격, 국제기술협력 강조
일본	SBIR, 창업대출프로그램, 중소·벤처 기업 지원센터 운영 등	상대적으로 정부의 직접지원 성격이 강함 (최근 변신 추구)

3) 해외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 지원정책

본 절의 대부분은 한국개발연구원(2005)과 김주훈(2005)의 연구를 토대로 〈표 5〉에 각 국의 정책 내용 및 주요 특징을 중심으로 정리했다.

미국의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의 주요 특징은 과학 기술 정책과의 연계성이 강하고 시장 친화적인 것이다. 또한 주로 신생 기업 위주의 지원이 이뤄지고 있으며 SBIR 과 SBIC 와 같은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지원되고 있다. 독일 지원정책의 특징은 미국과 상당히 유사하다고 판단되는데, 그 하나가 신생기업 위주의 지원을 지향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ERP특별펀드와 EIF(European Investment Fund)간의 Joint Venture형태로 만들어진 모태펀드는 신생 성장 기업을 위한 벤처캐피탈에 투자하고 있다.

프랑스는 혁신법(The Law on Innovation and Research)을 근간으로 기술개발과 관련한

각종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예컨대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 기관인 ANVAR 산하의 FIST는 혁신법에 근거하여 기술이전을 담당하고 있으며, 2003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혁신계획(The Plan for Innovation)’ 역시 혁신법에 뿌리를 두고 있다. 프랑스의 혁신법은 지원 대상을 일률적으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신생 중소기업의 혁신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혁신법의 핵심내용은 연구원의 이동 및 겸직 허용, 공공기관과 기업의 협력촉진, 혁신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등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혁신법은 한국의 ‘벤처법’ 과 상당히 유사한 성격을 띠고 있다. 다만 지원 대상에 대한 법률적 정의를 하고 있지 않으며, 인력공급지원, 네트워킹 지원, 조세감면 등에 국한하고 있다는 점에서 직접지원의 성격이 강한 ‘벤처법’ 과 차별된다. 그 외에도 이스라엘과 일본의 경우까지 포함해 간략히 살펴보았다.

정책초점

4.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의 특성³⁾

본 장에서는 우리나라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의 기술 수준, 기술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 혁신 변수, 창업자의 특성, 창업 동기, 성장 단계별 애로사항 및 혁신 활동 등 단편적 분석이 아닌 이들의 상관 관계 분석 결과를 통해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의 특성을 살펴본다. 본 결과 분석을 위해 구체적으로 2006년 6월까지 이노

비즈 인증을 받은 기업과 2006년 5월까지 벤처 인증을 받은 총 318개를 대상으로 했다. 69.2%가 벤처 인증만을 5.3%가 이노비즈 인증만을 중복 인증이 25.5%였다. 즉, 설문에 응답한 이노비즈 인증 기업 중 대부분(82.8%)은 벤처 인증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6>은 업종, 업력, 종업원 수, 매출액과 같은 이들의 일반 현황에 대한 설명이다.

<표 6> 조사에 응답한 기업의 일반 현황

(a) 업종 분포

업종	구성비(%)
인터넷/SW/멀티미디어	12.9
생명공학	6.3
환경	6.6
정보통신	10.1
반도체	3.1
전기/전자	19.5
기계/금속	8.5
화학/에너지	3.1
건설	1.9
섬유/비금속광물	0.6
의료	3.5
기타	4.4

(b) 업력 분포(2006년 8월 기준)

업력(년)	<1	1-2	2-3	3-4	4-5	5-6	6-7	7-8	8-9	9-10	>=10
비율(%)	3.8	17.6	14.8	15.4	11.3	9.7	7.5	4.1	2.8	0.9	11.9

(c) 종업원 수

종업원 수(명)	<10	10-20	20-30	30-40	40-50	>=50
구성비(%)	37.2	31.2	15.5	3.2	3.2	9.8

(d) 매출액 분포

매출액(억원)	<5	5-10	10-50	50-100	100-200	>=200
구성비(%)	26.1	13.4	36.1	10.7	8.4	5.4

정책초점

1)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의 기술수준

기업 자체적으로 기술 수준을 평가한 ‘기술 수준’ 을 사용하였으며 설문결과 ‘매우낮음’ 0.3%, ‘낮음’ 2.8%, ‘보통’ 17.9%, ‘높음’ 46.2%, ‘매우높음’ 32.7% 으로 응답하여 우리나라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은 자사의 기술수준이 높다고 스스로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자체 평가한 기업의 기술 수준과 기업 혁신 요인(제품혁신, 공정혁신, 경영혁신, 시장 경쟁강도, 대기업 의존도 등) 및 기업의 성장단계와의 분석결과가 <표 7>에 자세히 서술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기술 관련 특성을 얻었다. 첫째, 우리나라의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의 기술수준은 제품혁신 뿐 아니라, 공정혁신, 경영혁신 및 외부환경(시장경쟁강도, 대기업 의존성)에 의해 모두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기업의 기술혁신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R&D 측면의 제품혁신을 도모하기 위한 직접 지원 뿐 아니라 공정혁신, 경영혁신, 대기업과의 관계개선 등의 간접적인 분야에서의 지원도 필요하다. 둘째, 주력제품의 성장단계와 기술수

준 간에 역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 기술 수준이 높은 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시장 및 신제품에 대한 분석정보를 예비창업자에게 끊임없이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이미 시장에서 성숙기 혹은 쇠퇴기에 접어든 제품을 주력상품으로 하는 경우에는 기술수준의 향상에 기업의 자원을 투입하기 보다는 비용절감 등 다른 요소의 향상을 위해 자원을 투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기술혁신형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도입기에 있는 제품 혹은 시장에 대한 정보를 창업예비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해 주어야 하며, 기존 기업에게도 새로운 제품, 시장현황에 대한 분석정보를 제공하여 신제품으로 주력제품의 전환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셋째, 대기업에 대한 의존성이 낮은 기업일수록 기술수준이 높다. 이는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기술수준이 높기 때문에 대기업과의 협력 기업으로서의 형태가 아닌 독자브랜드로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를 한다고도 판단할 수 있으며, 다른 시각에서 해석을 한다면 대기업에 의존하는 기업은 상대적으로 생존에 대한 자극이 적어 독

<표 7> 기술 수준과 기업 혁신 요인간의 상관분석 결과

구분	기술 수준 영향 변수	회귀계수	분석 결과	p-value
제품 혁신	R&D 인력 비중 지적재산권	0.28832 0.01333	기술 수준과 정의 상관 관계 존재	0.1073 0.0391
공정 혁신	공정자동화율	0.35525		0.0445
경영 혁신	경영혁신활동 업무 자동화율	0.22865 0.30066		0.0268 0.1184
시장 경쟁 강도	주력제품 성장단계 경쟁업체	-0.22927 -0.1211	주력 제품의 성장 단계와 기술수준이 역의 상관 관계	0.0019 0.0342
대기업 의존도	대기업 의존성	-0.14829	대기업에 대한 의존성이 낮은 기업일수록 기술 수준이 높음	0.0076

정책초점

자생존을 위한 기술개발에 소홀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중소기업 간의 건전한 경쟁유발은 기술혁신의 기폭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 창업자 특성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 창업자의 특성은 창업 당시 나이, 성별, 학력, 경력, 창업 동기 등으로 정의된다. 우리는 창업자의 일반 현황과 기술 수준과의 관계를 통해 몇 가지 다음과 같은 창업자 특성을 얻었다.

창업자의 평균 연령은 40세, 창업자의 학력은 고졸이하 12.6%, 전문대졸 9.1%, 대졸 40.8%, 석사 21.1%, 박사 16.4%로 석박사의 비율이 37.5%로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창업자의 전공은 공학이 전체 59.3%. 자연과학이 12.5%로 이공계가 많은 부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창업자의 일반 현황 및 몇 가지 통계적 의미가 <표 8>에 정리되어 있다.

이들 창업자의 특성과 기업의 기술 수준과의 분석 결과, 창업자의 연령 및 창업자의 성별, 과거 창업 경험이라는 창업자의 특성은 기업의 기술수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학력과 기술수준과의 연관성에 대한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 결과, 통계적으로 서로 연관성이 존재하고 기술 수준이 높은 기업 일수록 창업자의 학력이 높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특히, 기술수준에 따른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는 창업자의 전공과 기술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기술수준이 높은 기업의 경우에는 자연과학을 전공한 경우가 20.9%로 기술수준이 보통이하인 5.3%보다 약 4배정도 높은 수치를 나타낸다. 또한, 자연과학 혹은 공학을 전공한 창업자가 그 이외의 분야를 전공한 창업자에 비해 전공과 현재 운영 중인 회사와의 연관성이 높았다. 창업 전 직업과 기술 수준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특히 대기업에 근무하다가 창업하는 경우보다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다가 창업하

<표 8> 창업자의 특성과 기술 수준과의 상관분석 결과

창업자 특성	분석 결과	비 고
연 령	평균 창업 연령은 40세	
성 별	남성이 95% 이상을 차지	
재창업자	전체의 32.1%	
창업 전 직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종사자 비율 50%, 대기업: 33.3% ● 창업자의 창업 전 직업과 현재 운영 중인 사업과의 연관성이 매우 높음 	창업 전 직업과 기술 수준이 통계적으로 상관관계가 있음(특히, 중소기업이나 연구소에 근무한 경우에 있어서 기술 수준이 두드러지게 높게 나타남.)
학 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박사 비율이 37.5% 	창업자의 학력과 기술 수준 간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임
전 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과학 혹은 공학 전공 72% ● 자연과학/공학 전공자가 현재 운영 중인 사업과의 연관성이 다른 전공자보다 높게 나타남 	

정책초점

〈표 9〉 창업자의 특성과 창업 동기와의 상관분석 결과

창업자특성	분석 결과	비 고
창업자 학력	학력이 높을수록 부정적 여건 때문에 창업하는 경우가 적으며, 학사 및 석사학위 소지자의 독립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독립욕구, 부정적 여건, 여가활용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
창업 전 직장	대기업, 혁신형 중소기업, 학생, 무직의 경우, 독립욕구, 부정적 여건에 의한 창업이 높으며 여가활용 차원에서의 창업에 대해선 교수, 학생, 개발욕구에 의한 창업도 학생의 경우가 많음	
창업자 직장 경험 유무	독립욕구, 부정적 여건, 여가활용에 대해서는 창업경험자가 나머지에 대해서는 창업 무경험자의 요인 점수가 높게 나옴	
창업 연령	연령이 낮을수록 높은 소득을 얻고 원하는 일을 마음껏 하기 위해(독립욕구) 창업하는 경우가 많음	여가활용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
창업자 성별	남성이 여성보다 여가활용에 대한 욕구가 높음	
창업자 전공	창업자 전공에 따라서는 딱히 패턴이 없음	

는 경우가 기술 수준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중소기업 특성 상 대기업보다는 훨씬 폭넓게 개인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할 기회나 영역이 많은 것을 그 원인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다음은 창업 동기와 창업자의 특성과의 관계를 살펴보자. 〈표 9〉에 이에 대한 통계적 분석 결과가 정리되어 있다.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자들의 창업 동기는 독립욕구, 부정적여건, 개발욕구, 호의적여건, 여가활용의 5가지로 정의했다. 이 중 창업 동기의 25%가 개발 욕구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적 여건의 지수가 낮을수록, 개발에 대한 욕구가 높을수록 창업한 회사의 기술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긍정적인 이유로 창업을 하는 경우에 기술 수준이 높고 이후 성공적으로 기업을 운영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아울러, 창업 동기와 창업자 특성 간에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줬다. 대체적으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여가

활용에 대한 욕구가 높고 학력이 높을수록 부정적 여건 때문에 창업하는 경우가 적으며 학사 및 석사학위 소지자의 독립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역시, 창업자의 특성에 기반 한 창업 정책 지원이 이뤄져야 함을 다시 한 번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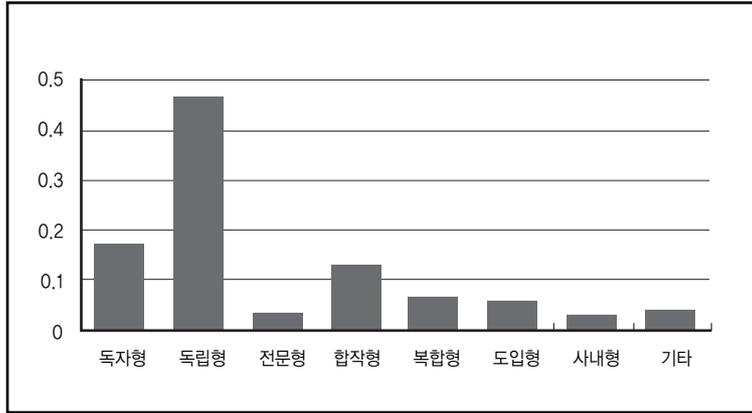
3) 기업 특성

기업의 창업 형태, 성장 단계, 창업자의 역할을 기업의 특성으로 정의하고 이들 간의 연관성에 대해서 살펴보자.

먼저, 기업의 창업 형태에 대해서 살펴보자. 〈표 10〉의 기업의 창업 형태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참고로 〈그림 6〉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의 가장 많은 창업 형태는 기술을 갖고 있는 창업자가 창업투자회사/정부 등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창업하고, CEO로 기업경영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지고

정책초점

〈그림 6〉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의 창업형태



〈표 10〉 창업형태에 대한 조작적 정의

변수	조작적 정의
독자형	기술을 갖고 있는 창업자가 독자적인 자본으로 창업하고, CEO로 기업경영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지고 있음
독립형	기술을 갖고 있는 창업자가 창업투자회사/정부 등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창업하고, CEO로 기업경영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지고 있음
전문형	기술을 갖고 있는 창업자가 창업투자회사/정부 등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회사를 창업하고, 회사의 전반적인 운영은 경영능력이 있는 전문 경영자가 맡음
합작형	기술을 갖고 있는 창업자와 자본을 갖고 있는 창업자가 공동으로 창업하고 기업의 전반적인 운영은 자본을 투자한 창업자가 맡음
복합형	기술을 갖고 있는 창업자와 자본을 갖고 있는 창업자가 공동으로 창업하고 기업의 전반적인 운영은 경영능력이 있는 전문 경영자가 맡음
도입형	창업자가 독자적인 기술을 갖고 있지 않고 외부의 기술을 활용하여 창업을 합사내형대기업 내에서 투자를 받아 창업을 함
기타	독자, 독립, 전문, 합작, 복합 및 사내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있는 독립형 창업이 가장 많음을 보여주며 독자형과 합작형이 뒤를 이음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에 전문형의 비중이 상당히 적음을 알 수 있다.

〈그림 7〉은 창업자의 역할에 관한 것이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의 CEO는 기업의 기술개발, 마케팅, 자금, 생산, 경영 등 기업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갖고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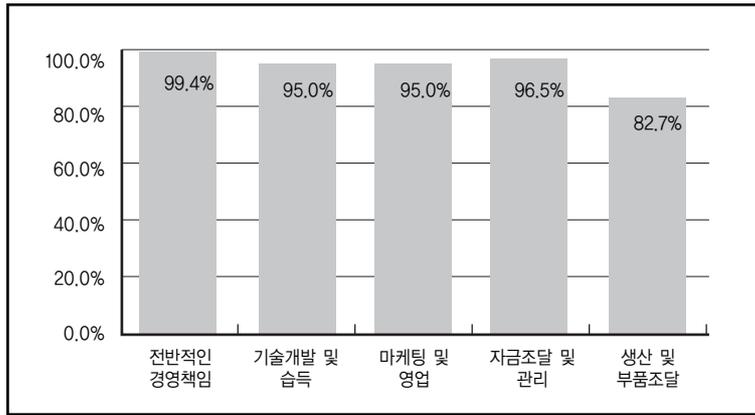
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앞서 살펴 본 〈그림 6〉의 창업 형태의 결과와 비슷한 결과로 직접적으로 CEO의 전문 경영 능력을 뒷받침해 주는 지원 제도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다음은 기업의 성장 단계별 특성을 살펴보자. 〈표 11〉은 기업의 성장 단계별 혁신 활동에 있어서의 차이를 살펴본 것이다. 표를 통해서

정책초점

〈그림 7〉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의 창업자의 역할



〈표 11〉 성장단계별 혁신활동의 차이

성장 단계 항목	창업기	성장기	성숙기	비 고
R&D 인력비중	44%	32%	22%	각 단계별로 R&D 인력비중이 차이가 발생함
지적재산권	3.1개	4.1개	8.1개	창업기와 성장기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으나 성숙기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존재함
공정자동화율	24%	38%	45%	성장기와 성숙기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으나 창업기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존재함
경영혁신활동	23%	27%	50%	창업기와 성장기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으나 성숙기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존재함
업무자동화율	52%	60%	70%	창업기와 성장기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으나 성숙기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존재함
주력제품 성장단계	1.6단계	2.1단계	2.9단계	각 단계별로 차이가 발생함
경쟁업체	2.3개	2.4개	2.7개	창업기와 성장기, 성장기와 성숙기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으나 창업기와 성숙기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존재함
대기업의존성	1.6	2.0	1.8	점창업기와 성장기 간에만 유의한 차이가 존재함

알 수 있듯이 창업 초기는 제품 개발 중심의 전략이 성숙기로 갈수록 원가 절감 및 경영 효율화를 높이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성장단계별 니즈가 다르며 이에 따른 지원 정책 역시 달라야함을 시사한다.

4) 애로 사항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창업자 특성별, 기업의 성장단계별, 기업의 창업 형태에 따라서도 경영상의 애로사항에 대해 일정 패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정책초점

〈표 12〉 창업자의 특성별 애로사항

분석 항목	분석 결과
창업자 학력	고졸 이하의 학력을 갖고 있는 창업자가 전반적으로 애로사항을 적게 느낌
창업 연령	30대, 40대가 타 연령층에 비해 창업에 대한 애로사항을 많이 느낌. 특히 자금을 대한 애로사항을 상대적으로 크게 느끼고 있음. 20대는 인력, 50대는 경영체계의 정립에 대한 애로사항이 많음
창업 전 직장	판로와 창업 보육 센터 입주에 대해서만 차별화 됨. 연구소의 경우, 판로의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무직의 경우, 창업 보육센터 입주 시, 어려움 겪음
창업자 직장 경험 유무	경험자의 경우 자금이 무경험자의 경우 판로개척에 어려움 있음
창업자 성별	남성이 여성보다 애로 사항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창업자 전공	경영/경제를 전공한 창업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애로사항을 느낌 자연과학을 전공한 창업자는 창업자금 및 판로개척에 상대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느낌
창업 형태	사내형 창업과 전문형 창업의 경우,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창업이 유지됨을 보이며 합작형은 판로에 대해 도입형은 자금과 판로에 애로 사항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첫째, 창업기의 가장 큰 애로 사항은 판로와 자금지원의 부족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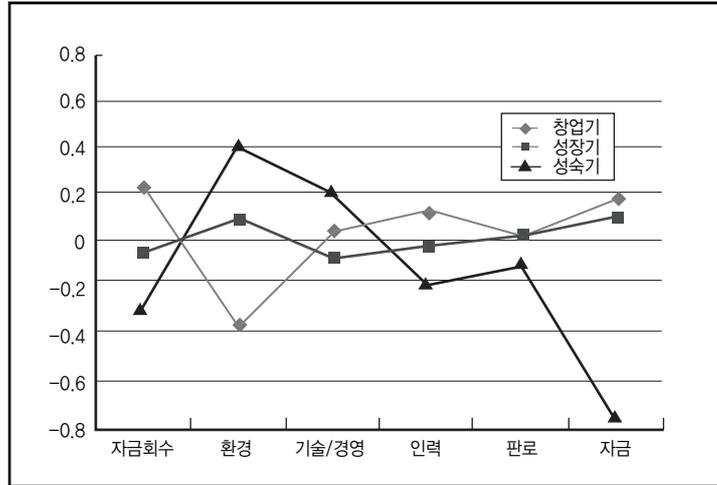
둘째, 이러한 창업기의 애로 사항도 창업자 특성별로 창업 형태별로 각기 다른 패턴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앞서 얻은 창업자 특성을 고려한 지원 정책의 수립이 필요함을 재확인 해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자세한 결과는 〈표 12〉에 나타나 있다.

셋째, 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라 애로 사항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8〉은 기업의 성장단계별 애로사항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을 통해 몇 가지 사실을 얻을 수 있다. ①창업기의 기업은 인력과 자금조달 분야에 대한 애로사항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성장기에 접어든 기업은 창업기의 기업에 환경적 요인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애로사항이 상대적으로 낮거나 비슷하다. 또한, 성숙기에 있는 기업은 환경 및 기술

/경영에 대한 애로사항이 매우 높으며 인력, 판로, 자금의 애로가 상대적으로 낮다. ②기업이 성장할수록 환경적 요인에 대한 애로사항이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자금을 대한 압박이 낮아지고 있다. ③창업기에는 기술 및 경영에 대한 애로가 비교적 높았다가 성장기에서는 낮아지고 있으며, 성숙기에 들어서는 기업이 재도약을 하기 위해 새로운 기술과 경영혁신에 대한 애로가 매우 높다. ④자금에 대한 애로는 창업기에 가장 높았다가 성장기, 성숙기로 갈수록 낮아진다. ⑤납품대금에 대한 자금회수의 경우 창업기, 성장기, 성숙기 순으로 애로의 정도가 높은 경향이 있다. 이는 창업 초기 기업의 경우 기업 운영에 대한 노하우의 부족으로 납품업자와의 관계 설정 시 어려움 때문이라 해석된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라 차별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이를

정책초점

〈그림 8〉 기업의 성장단계별 애로사항*



* 자금회수에 대한 p-value: 0.0076, 환경: <0.0001, 기술/경영: 0.2200, 인력: 0.1945, 판로: 0.7349, 자금: <0.0001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중소기업의 육성이 가능할 것이다.

5. 창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이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음은 명백하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러한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의 창업 활성화는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업의 단순 창업에 그치지 않고 이들 기업이 지속적으로 사업을 영속할 수 있도록 유도함에 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의 특성과 현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을 총괄적으로 살펴보았다. 이에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정책적 제안을 한다.

1) MECE적 사고에 의한 혁신형 중소기업 정책에 대한 패러다임의 재정립

MECE (Mutually Exclusive Collectively Exhaustive) 는 서로 중복 혹은 누락 없이 문제에 접근하는 방법이다. 즉, 겹침 없이 완벽하게 전체를 포괄함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과연 정부에서 말하는 혁신형 중소기업(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경영 혁신형 기업)에 대해선 중복/누락 없이 MECE 적 기준에 의한 분류가 이뤄졌을까?

〈표 13〉와 〈표 14〉은 현 정부의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인증 현황이다. 정부의 30,000개 혁신형 중소기업을 목표로 해가 갈수록 중복 인증 업체의 비중은 증가하고 있다. 이는 정부의 혁신형 중소기업 각각에 대해서 모호한 정의를 가지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물론 중복 그 자체는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현

정책초점

〈표 13〉 혁신형 중소기업 추이

(단위: 개사)

년 도	2001	2004	2003	2002	2005	2006
총 계 (중복업체 제외)	11,783	8,839	8,558	9,500	10,731	17,512
벤처기업	11,392	7,967	7,702	8,778	9,732	12,218
기술혁신형 기업	1090	2,762	2,375	1,856	3,454	7,183
경영혁신형 기업	-	-	-	-	-	2,619
합 계	12,482	10,729	10,077	10,634	13,186	22,020
중복업체	699	1,890	1,519	1,134	2,455	4,508

자료: 중소기업청

〈표 14〉 혁신형 중소기업 인증유형별 분포(07년 2월 기준)

(단위: 개사)

인증유형	기업수	비중
벤처인증(Only)	7,101	40.2
이노비즈인증(Only)	2,965	16.8
경영혁신인증(Only)	2,313	13.1
벤처인증+이노비즈인증	4,954	28.0
벤처인증+경영혁신인증	52	0.3
이노비즈인증+경영혁신인증	148	0.8
벤처인증+이노비즈인증+경영혁신인증	144	0.8
총 계	17,677	100.0

자료: 중소기업청

재의 혁신형 중소기업 지원 정책이라는 것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인증에 준한 정책이라는 것이다. 현 정책은 이들 중복 인증 업체의 중복 수혜에 대한 마땅한 규제가 없으며 이들 역시 중소기업이므로 일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정책까지 고려한다면 중복 수혜 확률은 훨씬 높아진다. 이는 자칫 중소기업자들의 moral hazard를 유도할 뿐 아니라, 정부 예산의 효율화 측면에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2008년에는 30,000개의 혁신형 중소기업이 존재 할 것이며 중복 인증 업체는 지금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지금이라도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

한 패러다임의 정립을 통해 양적 팽창이 아닌 질적인 성장을 꾀해야 할 것이다.

2) 기업의 특성 및 창업자 특성을 프레임워크로 한 정책의 수립

이는 작년 초 중소기업청의 연두보고에서 발표한 수요자 맞춤형(정부는 정책대상의 유형별·성장단계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발표)이라는 중소기업의 정책 방향과 일치한다. 기업의 성장단계별, 기업의 창업자 특성별 니즈와 정책적 효과가 다를 것으로 보이는 연구결과가 이미 오래 전부터 반복적으로 나

정책초점

오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이러한 정책적 방향성이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다. 특히, 앞서 보여준 창업자의 특성과 기업 특성에 따른 애로에 각기 다른 패턴이 존재함은 이들에 대한 지원 정책이 달라져야 함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중소기업 정책 중 3.5%만이 중소기업의 성장단계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다 함은 정부의 수요자 맞춤형이 전혀 이뤄지고 있지 않음을 단적으로 지적한다. 혹자는 그러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함에 있어 드는 비용 대비 효과를 고려했을 때 이러한 맞춤형 지원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불합리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자명한 정책 방향을 지속적으로 간과한다면 끊임없는 동일한 연구 결과가 반복될 것이며 무엇보다 기업의 니즈와 불일치하는 지원 정책을 유지할 때 생기는 예산의 낭비는 지속적으로 이뤄질 것이다. 이러한 수요자 맞춤형 지원 정책은 최근 정부기관에서 앞 다투어 도입하고 있는 CRM(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의 기본 철학인 능동형 서비스(proactive service)를 실제로 구현할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이다.

3) Entrepreneurship Education에 대한 강화

우리나라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은 대부분 기술을 갖고 있는 창업자가 창투사 혹은 정부 등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창업하며 기업 경영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지는 독립형 창업 형태가 대다수이며 기술/경영/마케팅/자금/생산 등 CEO가 multi-player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대학에서는 체계적 Entrepreneurship

Education, 즉 창업 교육이 전혀 이뤄지고 있지 않다. 특히, 창업자의 72%가 자연과학 혹은 공학 전공자로 현재 운영 중인 사업과의 연관성이 다른 전공자보다 높게 나타남을 보여줄 때, 이공계 대학에서의 창업 교육은 시급한 상황이다.

이미 미국을 비롯한 해외 선진국에서는 대학 교과 과정에서 창업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Bobson, Stanford, Harvard, MIT 대학에서 공대 학부를 포함한 일반 학부, MBA 과정에서 창업 교육 실시하고 있으며 독일에서는 대학 내 실험실 창업지원프로그램인 EXIST를 통해 IT, BT, 환경기술 및 엔지니어링 분야에 대한 창업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다. 캐나다에서는 교육훈련에 의해 준비된 예비창업가(Entrepreneurs By Design, EBD)를 통해 고등학교, 대학생을 비롯해 일반인까지 폭넓고 다양하게 창업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유럽에서 역시 초등학교에서부터 체계적으로 창업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특히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의 대다수의 CEO를 배출하는 이공계 대학에서의 체계적으로 이뤄진 Entrepreneurship Education을 통해 모든 면에서 준비된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 CEO가 배출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중앙대를 비롯한 5개 대학에서 창업대학원을 운영하고 있다.

4) 창업 초기 기업 및 간접 지원에 대한 지원 강화

〈표 2〉에 의하면 중소기업 지원정책 전체의 1.5%만이 창업기 기업에 대한 맞춤형 정책이다. 그렇다면 98.5%는 성장기부터 혹은, 중소

정책초점

기업 전체에 대한 지원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우리는 과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어느 정도까지 이뤄져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 지원 정책의 적정선에 대해서는 쉽게 말할 수 없다. 그러나 기업의 본질이 이익 추구를 위해 결집된 집단이며 그러한 이익 추구는 시장 경쟁 속에서 자체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것이 명백하다고 할 때 지나친 지원 정책은 앞서 언급한 기업의 moral hazard와 기업을 스스로 무기력하게 만들도록 유도해 오히려 여러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적정한 지원 범위에 대해서 늘 생각해볼 필요가 있으며 여러 면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초기 기업에 대한 체계적 지원과 함께 탄력적 정책의 지원이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직접 지원이 아닌 간접 지원 형태의 정책 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정책적 방향성은 앞서 살펴본, 해외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정책이 공통적으로 신생 기반 기업 및 간접 지원에 그 초점이 있음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모든 성장단계에 있는 기업들에게 있어서 보여지는 현상은 “정보의 부족”이다. 여기서 말하는 정보라 함은 제품 및 부품에 관련된 전반적인 시장 동향 및 업체들에 대한 정보를 말한다. 국내의 삼성, LG를 포함한 몇 개의 대기업에서는 이미 이러한 시장이나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세계적 ISP(Information Service Provider) 들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 대응하고 있으며 협력업체인 중소기업과의 단가 협상 시 참고자료로 사용하고 있다. 문제는 가격이다. 이들의 서비스 가격이 지나치게 비싸 신생기업이 이러한 서비스를 받기에는 쉽지 않

다. 모든 분야에 대한 서비스가 쉽지는 않지만, 수요 조사를 통해 순차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ISP 들을 통한 중소기업에의 지속적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ISP의 활용은 도입기에 있는 제품 혹은 예비 창업자가 시장에 대한 정확한 판단으로 그들이 시장 진출을 좀 더 용이하게 하며 아울러, 성숙기에 있는 기업에게는 신제품 개발을 통한 지속적 사업을 유도한다. 궁극적으로 ISP를 이용한 정보 획득은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널리 알려진 ISP 업체로는 iSuppli, Paumanok Publication, Frost & Sullivan 등이 있다.

정보 제공 시스템(ISP) 도입 외에도 고려해야 할 신생 기업에 대한 간접 지원 중 하나가 창업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이다.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의 창업 형태가 CEO가 회사 전반 경영에 책임을 지는 독립형이 많은 만큼, 창업자가 창업초기에 부족한 경영능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인큐베이팅 혹은 경영 컨설팅이 활발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술 창업 패키지 1000과 같은 패키지형 창업 지원 프로그램의 활성화, 창업보육센터 역할의 재정립 및 창업보육센터 별로 차별화된 창업 지원 서비스의 개발 등이 필요하다. 그러나 반드시 앞서 언급된 정규 교육 과정에서 의 창업 교육과는 차별화 되어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은 해외 사례에 대한 무수한 벤치마킹을 통해서 이미 세계적 수준에 올라와 있다. 단지 간단한 몇 가지를 간과함으로 인해 그 활용도와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제시한 몇 가지 정책적 제언을 통해 공급자인 정부와 수요자

정책초점

인 중소기업 간의 지원 정책의 Gap은 줄어들 것이며 지원 정책에 대한 효율성과 실효성이 높아지리라 기대된다.

【주】

1. 혁신형 중소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및 육성전략, 2006, 기술정보진흥원.
2. 본 절은 중속기업연구원에서 발행하고 있는 KOSBI Issue Paper 25의 전문을 인용한다.
3. 본 장은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 활성화 방안(2006, 중소기업연구원)의 전문을 인용하며 자세한 통계적 분석에 대해선 본 원고에서는 생략한다.

【참고 문헌】

김영배(2005), 「혁신형 중소기업-기업특성, 기술학습과 경영성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김주미(2006),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창업 활성화 방안」, 중소기업연구원.

김주훈 (2005), 「혁신주도형 경제로의 전환에 있어서 중소기업의 역할」, 한국개발연구원.

중소기업청,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2006), 「혁신형 중소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및 육성전략」.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2005), 「외국의 중소기업 정책연구」.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2005), 「중소·벤처기업 창업애로 실태조사」.

한국개발연구원 (2005), 「벤처기업 확인제도 개편방안」.

<http://www.spi.go.kr/>